

다산포럼



이남주
성공회대 인문융합자율학부 교수

2016년 사드 갈등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갑작스럽게 악화되었다. 문재인정부 시기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이 있기는 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여러 여론조사는 최근까지도 양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 방향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 사이의 관계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한중 사이에도 국력의 비대칭성이 초래하는 경계심, 역사 갈등, 이념적 차이 등 쉽게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양국 사이의 협력을 불가능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한중 사이에는 물리적 충돌을 초래할 영토 갈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양경계 확정 문제는 외교를 통한 관리가 가능하다. 한중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하지만 양국 사이의 협력과 교류는 지금도 활발하다.

2024년 한중의 교역 규모는 2669억 달러에 달했다. 한국에게 중국은 제1의 교역 상대국이다. 미국에서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것을 고려하면 한중 교역의 중요성

韓-中 관계의 리셋은 가능한가

은 양국 모두에게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방한 중국인의 수도 2024년에 450만명을 넘어서 같은 기간 방한 외국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점했다. 한중 관계가 정서에 좌우되지 않는 면이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대외관계에서 다변화는 필요할지 몰라도 탈중국은 경제적으로는 물론이고 안보적으로도 택할 길이 아니다. 따라서 한중 관계의 원칙은 차이나 경쟁이 충돌이나 대립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고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냉전적 사고방식에 기초한 대중 접근법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이번 탄핵국면에서 윤석열정부와 보수세력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대중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가 잘 드러났다.

중국도 한국과의 최근 관계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한중 관계의 발전 계기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에 대한 대응 조치를 철회하는 데 소극적으로 움직였다. 사드 배치 문제는 한국 내부의 논의에 맞기고 한중 관계 발전에 주력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대중정책이 정치적 고려에 좌우되지 않고 국가 이익을 기초해 추진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이 만들어졌다. 중국도 최근 한국과의 관계에서 과거보다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한중 관계의 리셋으로 이어가야 한다.

고위급 양자 대화의 재개가 가장 시급하다. 고위급 대화의 단절은 한중 관계 악화의 결과이지만 지금은 한중 관계의 발전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최

근 양국의 고위급 대화가 재개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은 주로 한·중·일 대화, APEC, UN 등의 다자외교의 사이드 이벤트로 진행되었다. 양자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

양자 대화에서 무엇보다 신뢰 증진을 위한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중국인의 방한 편의성을 높여주는 정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은 소위 한한령에 따른 문화 교류에 대한 제약을 해소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증가한 것이 지난 몇 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간 교류의 안정적 증가가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제 영역에서도 주요 산업에서 양국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은 존재한다. 한국은 중국의 내수 시장에 진출해야 하고 중국은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한국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 영역에서의 협력은 양국이 더 균형적 경제관계를 맺고 급변하는 외부환경 변화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신뢰 구축을 기초로 한반도 안정과 평화가 가장 중요한 공통 과제이다. 한반도의 정세 악화는 한중의 전략적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을 높인다. 반면 한반도 정세의 개선은 한중 사이의 협력공간 확대에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금까지의 역사가 잘 보여준다.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과 교류를. 신뢰 구축을 기초로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기원한다.

청춘 특특



최인서
호남대 물리치료학과 3년

꽃샘추위가 온 몸을 움츠리게 했던 3월 중순, 아주 특별한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지난 2년간 물리치료학과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해오긴 했지만 1학년 후배들에게는 선배로, 학과 교수님에게는 그동안 전공에서 배운 것들을 선보이는 재능나눔 봉사활동이었다.

우리 대학은 지난 2008년부터 전국 대학 최초로 전공분야 재능과 지역사회 봉사를 결합한 ‘전전 MT’를 시작했다. 2017년부터는 모든 학과가 전공 특성을 살려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펼치는 ‘전공봉사 현장학습’(Field Trip, FT)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FT의 일환으로 3월 18일 행복드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전기치료(TENS), 테이핑, 마사지건, 핫팩, 스트레칭 등 여러 가지 치료 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따뜻함’을 엮은 재능나눔 봉사활동

적용해 볼 수 있었다. 그동안의 활동에서 느꼈지만, 봉사는 단순히 치료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과의 소통을 통해 따뜻한 교감을 나누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한 어르신께 테이핑을 해드리며 들었던 말이 기억에 남는다. “이거 붙이면 힘이 막 솟아나는 거야?”라는 어르신의 물음에 “네! 근육을 잡아줘서 움직이기 한결 편해질 거예요”라고 설명드렸다. 그러자 어르신은 팔을 반쯤 드시며 “오! 진짜 그런 거 같은데”라고 힘차게 말씀하셨고, 그 모습을 본 다른 어르신들도 테이핑을 받겠다며 줄을 서셨다. 덕분에 학생들은 예상보다 더 많은 실습을 할 수 있었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치료 기술을 익힐 수 있었다.

봉사활동이 끝난 무렵 한 할아버지께서 “이 나이에 젊은 친구들을 보니 나도 힘이 난다”라며 기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처음에는 긴장했던 1학년 학생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르신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밝은 에너지를 나눴다. 몇몇 어르신들은 학생들이 지도하는 스트레칭을 따라 하시며 “이렇게 하니까 몸이 한결 가벼워진다”라고 하셨고 분위기는 점점 윤투해졌다.

이번 경험을 통해 물리치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

시 한번 생각했다. “덕분에 시원하고 좋다”라는 어르신들의 감사 인사를 들으며 물리치료가 단순한 치료 행위를 넘어 사람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킨다는 것을 실감했다. 특히 환자의 신체적 회복 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물리치료사의 역할은 단순한 치료 제공에 머물지 않는다. 환자와 신뢰를 형성하고 그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치료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이번 봉사활동은 나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주었고 앞으로 물리치료사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생각하게 만든 소중한 기회였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고 다양한 환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성장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학우들과 협력하며 더욱 전문적인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금은 학생이지만 미래에 물리치료사가 돼서 환자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나 뿐만 아니라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후배들도 나름대로 얻은 깨달음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인재로 성장하는 디딤돌 하나를 놓았길 기대한다.

기고



한미경
독일 하늘퍼블리싱 대표

2025년 봄 지구 전체에, 자본과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새로운 독재의 출현에 대항하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시민사회의 정의를 다시 세우려는 목소리들이 우렁차다. 19년째 독일에서 살고 그곳에서 두 자녀를 키운 재독 한국인인 나는 지난해 11월 한국에 입국했다가 한국사회에서는 이 갈등이 어떻게 표출되고 진행되는지를 피부로 체험하게 되었다. 출판인이며 교육가인 나는 한국에 머무르는 4개월 동안 국공립교육기관, 독일 발도르프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또 여러 서점과 출판인들과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번 가졌다. 그 사이 저학년 어린이들을 위해 간절하게 다가온 생각이 있어 오늘 이렇게 나누고자 한다.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독재자들은 권력을 장악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 우민화 정책을 사용하는데, 시민들을 통제하기 쉬운 군중으로 전락시키기 위해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길러내고 교육 내용을 국가가 철저하게 통제한다.

어린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을!

독서 인구 감소는 세계적인 현상이긴 하나 여전히 비교적 높은 독서 인구를 가진 인문학 강국인 독일에 살아온 나는 마음 속으로 나의 모국 또한 문화강국의 반열에 들어섰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서점을 방문하였다가 심각한 충격에 휩싸였다. 어린이 출판물의 모든 분야, 학습, 과학, 문학 할 것 없이 한결같이 만화풍 일색이었던 것이다.

서점에서 어린이들이 직접 고르기 때문에 판매량이 높은 만화풍의 책이 현재 대부분 유통된다고 설명했다. 아는 학부모는 출판사들이 이윤에 급급해 저학년 출판물이 하나같이 전편일물적인 그림과 조악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부모 입장에서 대안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한국 어린이들이 독일 어린이들보다 수준이 낮을리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한국의 어린이들은 우스꽝스런 그림과 유치한 문장의 책만을 잘 읽을 것이라고 출판인들은 생각한 것일까?

이 논의를 더 이어가기 전에 우선 저학년 아이들의 특징을 살펴보자. 7세에서 9세에 걸쳐 아이들의 몸에서 이 갈이가 진행된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지를 자기의 영구치로 하나씩 갈아나가면서 음식물을 섭취하여 영양분을 흡수하는데 쓸 자기만의 치아 구조를 견고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신체의 영양소만이 아니라 정신적 영양분도 꾸준히 공급받아야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이 마음의 양식을 섭취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독서인 것이다. 그러나, 책을 읽는 즐거움을 배워가는 첫 독자들이 저학년 어린이들에게 최고로 아름다운 책을 쥐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들이 자라 출판을 지망해주는 토양, 단단한 독서인구로 자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독서는 사람이 저절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안대되고 익혀야 하는 문화습관인 것이다. 부모 품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세상을 향해 팔을 벌리고 있는 어린이들의 순수한 눈빛을 떠올려 보라! 이 어린이들에겐 더더욱 아름다운 문장과 그림으로 채워진 양서를 열정적으로 출판하여 그들을 깨어있는 ‘책 읽는 시민’으로 키워가야 하는 것이 출판인의 신성한 의무가 아닐까?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 또한 유해식품을 가려내고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골라 먹이듯이 좋은 책을 골라 읽히고 해로운 책을 멀리하게 하여 좋은 독서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더 보살펴주기를 권한다. 유아기까지 소중하게 키운 자녀를 학령기가 되었다고 그냥 방임해버리기엔 너무 이르다.

‘늑대와 일곱마리 아기염소’ 속의 이야기처럼 부모가 부재한 사이, “애들이, 문 열어라. 너희들에게 맛있는 것을 주려고 엄마가 왔다”고 꼬시는 늑대에게 자녀의 미래를 통째로 삼키게 만드는 어리석음을 피해 갈지혜를 모든 부모들이 꼭 가졌으면 하는 간곡한 마음을 전한다.

社說

급물살 탄 개헌…정쟁도구로 이용해선 안돼

우원식 국회의장이 쏘아 올린 ‘대선과 개헌 동시 투표’ 제안으로 개헌이 정치권의 핫 이슈가 되고 있다. 우 의장은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우려하게 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 새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면서 지금이 개헌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정치권에선 개헌에는 이의제기가 없지만 시기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장 개헌특위를 구성하자며 적극 반기고 있고 조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주자들은 임기 단축이라도 해서 개헌 작업에 들어가자고 환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김부겸·김경수 등 대선 후보와 비례계도 우 의장의 제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친명계 의원들은 개헌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 의에서 “민주주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게 더 긴급하

다”며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밝혔다. 다만 국민투표법이 개정된다면 5·18 정신을 전문에 게재하고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은 곧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개헌이 먼저가 아니라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마찬가지로 밝혔다.

이 대표의 ‘동시 개헌·대선’ 제안 거절에도 우 의장은 정당한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고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고 개헌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윤석열 탄핵으로 ‘87 체제’에서 시작된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다시 확인된 터라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개헌에 동의하는 의견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정치권 일부의 목적처럼 개헌이 내란 종식을 흐지부지하려는 몰타기 전략이 되어서는 안 된다. 6월 3일 대선에 따라 5월 14일 이전까지 국회가 개헌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촉박한 측면도 있다. 무엇보다도 개헌 논의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해선 안 될 일이다. 합의 가능한 5·18 정신 전문 게재 등 현안을 우선 처리하고 권력구조 개편 등 예민한 내용은 대선 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제주항공 참사 100일…철저한 진상규명을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어제로 100일을 맞았다. 사고 이후 국민들의 추모와 위로에도 유가족들의 아픔은 치유되지 않고 있다.

박한신 12·29 제주항공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100일 추모제’에서 “사랑하는 이들의 빈자리는 메워지지 않았고 가슴 한 편에 해묵은 슬픔이 웅어리 집니다”는 말로 유가족들의 아픔을 표현했다.

유가족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이다. 참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블랙박스 확보가 중요하지만 사고 항공기 블랙박스 기록은 조류 충돌 등 충격으로 참사 직전 4분간 기록이 사라진 상태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엔진, 부품 등을 수거해 관련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해 놓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결

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진상규명에 가장 중요한 자료 가운데 하나가 사고기 교신기록이다. 광주지방변호사회 등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지원하는 변호사단체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교신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변호사단체는 당연히 공개돼야 할 교신 기록이 일부 유족에게만 공개됐고 그마저도 누설 및 논평 금지 서약 때문에 공론화가 가로막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은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불투명한 조사로 유가족들에게 또 한번 상처를 안겨야 하 되겠는가.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높여 진상규명에 일조하길 바란다.

無等鼓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점과 회복력이 동시에 드러났다.’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5일 ‘한국 민주주의가 무모한 지도자를 이긴 방식’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12·3 비상계엄과 이후 122일 간 한국 민주주의를 조명한 내용이다. NYT는 비상계엄에 즉각적으로 대응한 시민사회의 원상 회복력이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독재 종식, 자유선거, 권력 남용 지도자 축출 등 모든 주요 정치적 이정표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뒤에 성취된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한법재판소도 “국회가 상위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단계 낮은 ‘선거 민주주의’로 등급이 하락한 것이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도 지난 2월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에서 한국을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다. 2020년부터는 4년 연속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였다. 미국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지난 2월 공개한 ‘2025 세계자유지수’ 보고서도 한국 정표는 시민들이 거리로

민주주의 빌런

고서는 특히 “전 세계 주주의 국가들이 직면한 큰 위험 중 하나인 선출된 지도자들이 민주적 제도를 공격하는 것을 부각시켰다”며 위험적 비상계엄을 꼽았다.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빌런’들 때문에 애만 국민들만 고통받는 일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된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는 제주도 방언으로 “수고 많았다”는 말이다. 우리 국민들이 들어야 할 위로다.

/김지을 사회부장 dok2000@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6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